

012223 주일설교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시편(Psalm) 146:1-5

오늘날에는 신정과 구정이라는 표현이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설’ 또는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설날인 음력 1월 1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양력 1월 1일을 새해/양력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설날은 ‘설다, 낫설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설날은 낫선 날, 다시말해서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의미예요. 새해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낫선 시간이고, 낫선 질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해의 첫날을 이처럼 낫선 날을 뜻하는 설날로 부른 것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미지의 낫선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설날을 삼갈 신 자를 사용해서 신일, 다시말해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낫선 시간이고, 낫선 질서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사시는 2023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1,2절 ‘찬양 찬양 찬양.’ 2) 3절 ‘방백, 인생 의지말라’ (찬양할 것 못됨)> 4절 ‘왜 나하면 무호흡, 흠, 소멸.’ 3) 5절 ‘하나님을 도움으로, 소망으로 삼으라’ (찬양하는 삶이 해답-[하랄]높이라, 자랑하라!)

오늘 시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1절이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남의 문제는 참 쉬운데 내 문제는 어려워요. 남들한테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적하기는 쉬운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젯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절의 말씀을 시간의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의 생전” 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이라고 한다면 “나의 평생” 은 ‘그 이후의 시간도 포함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천국에는 성경공부도 필요없구요. 기도도 필요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갑자기 거기 성가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삶은 이어지는 겁니다!

3.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방백과 도울 힘 없는 인생(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댓구 이름)-의지[바타흐: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 희망을 꾀다, 신뢰하다] 말라

방백들[나디브]: princes, 귀인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정치가들, *성경은세상을 등지고 청산에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와서 공부할 때, 21년전에, 자주 듣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ㅎㅎ 말끝마다 내 아는사람 내 아는사람,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 한국만 그런줄 알았는데 미국서도 그러드라구요. ㅎㅎ 오늘 시편에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고 사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의지해라?라고 할법도 한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혹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그 손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 그 호흠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유는 육신의 호흠이 떠나면 흠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모” 라함은 [예슈토나] 즉,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가는 도중에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5.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제시하는 답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2.찬양하라[하랄] 자랑하라, 높이라<>찬양은 아부가 아니다! 착각마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신뢰하는 것! *마음을 다해 믿는 것!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의 계획을 두고 논쟁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를 좀 내려 주시면 좋을텐데... 지금은 좀 햇빛을 주시면 좋을텐데... 지금은 좀 바람을 주시면 좋을텐데... 했었더라도 이제는, 지금 주시는 바람과, 햇빛과 비를 기뻐하고, 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선하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신약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채플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본인이 음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디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별명을 ‘찬송 음치’라고 붙여 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채플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놀란 학생들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희한하게 부르지만 목소리만큼은 힘차게 부르는 교수님을 보고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찬송을 다 부르시고."

그랬더니 교수님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날 밤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릴 적부터 신자요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소개를 했더니, 베드로가 장부 같은 것을 뒤적거리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양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천국 문이 탕하고 닫혀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 찬송의 기쁨, 찬송의 기적, 찬송의 제사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고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 아름답고 완벽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고백! 또 나아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지는 순종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고 기뻐하실까요? 모든 걸 아시니까 그냥 우리의 맘만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사역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즉,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모두 동등하게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

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뻐하심을 보게 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지금도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또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거나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혹은 연인이 있다면 아무말 안하고 살겠습니까? 상대방이 기쁜일이든지 슬픈일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치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자/사랑하는 사람이 “I love you” 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기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기뻐!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지만, 그 말을 기뻐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론 낙두리도, 여러분의 힘듬도,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은 곡조있는 기도라 했으니 하나님께 그렇게 아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이사야 43:1-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지식도, 사람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찬양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길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